가사부터 주장자까지…일상에 깃든 수행

범어사 성보박물관 10월 20일 개막
'쯧! 생각을 멈추는 소리' 특별전
개산 1348주년·이전 5주년 기념
"일상 멈추고 자신 돌아보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쯧! 생각을 멈추는 소리, Inner Pause' 특별전을 10월 20일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에서 개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K-museum 특별전 '쯧! 때 생각을 멈추는 소리, Inner Pause'를 10월 20일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에서 개막했다.

범어사 개산 1348주년과 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엄숙하고 무거운 교리 대신, 스님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 제목인 '쯧!'은 선(禪) 수행 과정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내지르는 짧고 단호한 소리인 한자 '돌(咄)' 혹은 '할(喝)'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바쁜 나날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Inner Pause) 스스로의 내면을 점검하자는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사찰의 일상생활과 쉼을 엿볼 수 있는 150여 점의 다채로운 유물과 시청각 자료로 전시장을 채웠다. 전시는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일과 속으로 안내하며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전시의 도입부는 도량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로 시작된다. 1728년 조선 후기 주성된 '범어사 동종(부산시 유형문화유산)'의 소리는 대중의 기상과 예불을 알리며, 스님들의 수행과 삶이 맞닿는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식(食)과 의(衣)에 깃든 절제' 공간에서는 먹고 입는 일상 속 불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사명대사가 선조에게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 표충사 소장 '연엽형 발우(경남 유형문화유산)'는 연꽃잎 모양으로 여러 겹을 포개어 보관하도록 실용적으로 제작돼,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검소함을 보여준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의 붉은 가사와 가사고리도 나란히 놓여 수행자의 절제된 의생활을 조명한다.

오후의 고단함을 뉘이는 '소박한 쉼의 공간'은 이번 전시의 백미 중 하나다. 스님들이 무더운 여름철을 날 때 볕과 땀을 가리기 위해 사용했던 삿갓, 땀받이를 비롯해 휴식을 취할 때 베던 목침, 곰방대와 효자손 등 친근한 생활용품들이 공개된다. 여기에 스님들의 모습을 포착한 흑백 사진 20여 점이 생생함을 더한다. 현재 범어사 교무국장 효천 스님과 연수국장 장산 스님이 영상으로 들려주는 유쾌한 절집 생활과 실수담도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전시의 마지막은 하루를 닫는 '의례와 성찰'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번뇌를 끊어내려 내리쳤던 주장자와 마음을 다잡던 염주는 물론, 1965년 범어사 수계식 사진과 당시 실제 의례 공간을 장엄하는 데 쓰였던 '구룡도병풍', '자수수복문병풍(부산시 문화유산자료)' 등이 공개되며 관람객들에게 고요하고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절집에서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수행"이라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오늘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불교문화 품은 산 '명승'이 되다

강화 정족산 전등사·월출산 일원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가치 인정


국보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빼어난 자연경관과 불교문화를 품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출산 일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과 '월출산 일원'을 각각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정족산 전등사 일원은 산세를 따라 축조된 삼랑성과 전등사, 사찰림과 노거수, 개방감 있는 조망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지형과 어우러진 산성과 가람의 배치로 경관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고려시대 가궐과 국가 불교의례, 조선시대 사고(史庫)와 선원보각, 병인양요 승전지 등 여러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깊게 서린 곳이기도 하다. 고려 이색 등 문인의 유람 기록을 비롯해 고문헌과 고지도에 역사·경관 기록이 두루 남아 있다. 삼랑성과 전등사를 잇는 옛길은 사찰 참배와 유람, 주민의 생활 통로로 쓰여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더한다.

국가유산청은 "정족산의 자연지형과 전등사, 정족산사고, 사찰림 등 다양한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월출산 일원'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국가 제사를 지낸 천황봉을 품은 영산이자,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서남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한 역사적 공간이다.

월출산에 자리한 무위사는 선종 사찰의 전통과 조선 전기 왕실 후원 아래 조성된 극락보전과 벽화 등 불교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통일신라 때 도선 국사(827~898)가 창건한 도갑사는 관련 기록과 왕실 후원, 다수의 문화유산을 통해 왕실 불교와 지역 사찰의 관계를 보여준다. 월출산 일대에는 이 두 사찰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찰지와 마애불·석탑·비석·부도 등 풍부한 불교문화유산이 분포해 있다.

평야에서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 풍화 지형이 발달해 있고, 특이 식충식물 등 다양한 식생이 서식해 생태학적 가치도 크다. 지형과 관련된 신앙과 설화, 시대별 다양한 명칭, 정약용·김창협 등의 유산기와 시문 기록이 전해져 인문지리·민속·기록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화강암 산악경관을 기반으로 국가 제의와 불교문화, 시문과 옛 기록이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산악 문화경관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대해 전등사 주지 지불 스님은 "이번 정족산 전등사 일원 명승 지정은 인천에서 1997년 백령도 두무진 해변 지정 이래 29년 만의 쾌거"라며 "최근 안보 이슈와 교통체증 등으로 침체된 강화 관광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등사는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기간을 명승 지정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거리 배너와 현수막 설치, 강화군 관내 전광판 축하 영상 상영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두 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희정 기자


강화 정족산 전등사 일원.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61 체로금풍(體露金風)

초라한가, 당당한가?

體 露 金 風

가을 산은 눈부시다. 온갖 수목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펼쳐내는 단풍의 향연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소동파(1037~1101)가 "시냇물 소리는 부처의 설법이요, 산빛은 어찌 부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라고 읊었듯, 산과 들은 그 자체로 부처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그러나 찬 바람이 불면 무성하던 잎들은 이내 떨어지고, 산은 낙목한천(落木寒天)의 헐벗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엇갈린다. 앙상해진 가지에서 쓸쓸함과 허무를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잎을 모두 떨군 나무에서 오히려 담담한 평온과 의연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도 있다. 잎이 지고 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선불교의 공안집 〈벽암록〉 제27칙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한 수행자가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 선사에게 물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떠합니까?" 운문 선사는 짧게 답했다. "체로금풍(體露金風)." 가을바람[金風]에 잎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나무의 본체[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 980~1052) 선사는 이 화두를 찬탄하며, 넓은 들판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하늘 높이 가랑비 자욱한 가운데 소림사에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는 달마의 모습을 그려 냈다.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의 하이쿠 "마른 가지에 까마귀 앉아 있네, 가을 저물녘"에서도 비슷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선사와 시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깃든 맑고 고요한 존엄을 보았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 직함과 재물, 권력과 명망이라는 외적 조건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가면을 벗는 순간 타인에게 무시당하거나 스스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혀, 내면을 돌보기보다는 외적인 치장에 몰두한다. 자신의 가치를 외적 조건에 의지하는 한, 그것들을 잃는 일은 곧 자신을 잃는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잎을 모두 떨군 겨울나무에도 나무의 생명은 그대로 깃들어 있다. 무성한 잎에 가려져 있던 뿌리와 줄기의 모습도 한층 선명해진다. 겉모습의 변화가 존재의 가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1883~1957)의 묘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가을 산을 바라보라. 그리고 부질없는 허울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곧 체로금풍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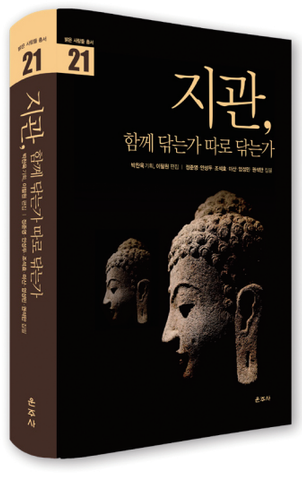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3,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20,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3,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4,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5,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외/25,000원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정준영 외/26,000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수행 방법인 지(止, 사마타)와 관(觀, 위빠사나)는 서로 다른 수행인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르고,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닦아야 한다면, 동시에 닦는 것인가, 순서가 있는가?

정준영·안성두·조석효·미산·엄성민·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7,000원



Ch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